

케인·모우라 포함... 토트넘 최정예 멤버 한국 왔다

출전 선수단 28명 발표... 13·16일 '팀 K리그'·세비야와 격돌 신에 히살리송 데뷔전... 국내 휴가 손흥민, 곧 선수단 합류

손흥민(30)의 소속 팀인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최정예로 구성된 한국 투어 명단을 발표했다.

토트넘은 10일(한국시간)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토트넘은 11일 오픈트레이닝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그리고 13일 오후 8시 서

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붙고, 1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세비야(스페인)와 대결한다.

토트넘이 방한 경기를 치르는 건 2005년 피스컵 국제대회 이후 17년 만이다. 2017년엔 구단 홍보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토트넘은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손흥민을 포함한 총 28명의 한국 투어 명단을 공개했다.

손흥민의 단짝인 해리 케인을 비롯해 루카스 모우라-데안 쿨루셉스카,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투쿠르, 에릭 디아어 등 주전급 선수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새롭게 영입한 히살리송-이브 비수마-페리시치 등은 한국 투어에서 데뷔전을 치를 전망이다.

지난달 브라질 대표팀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던 히살리송은 약 한 달 만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국을 찾는다.

영국 현지에선 이번 한국행 명단에서 제외된 지오반니 로 셀소-탕기 은돔벨레 등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새 시즌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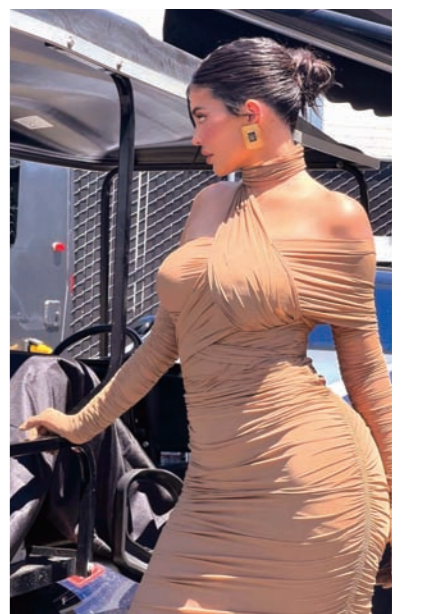
손흥민(30)의 소속 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최정예로 구성된 한국 투어 명단을 발표했다. 토트넘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에서 제외돼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A매치 4연전을 마친 뒤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 손흥민은 한국에서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카일리 제너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카다시안즈 홀루 촬영하러 가는 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뉴시스

24살 8000억 갑부 모델 카일리 제너 두 아이의 엄마?

할리우드 셀럽이자 인플루언서 카일리 제너(24)가 근황을 전했다. 포브스 선정 '2022 자수성가 여성 갑부 100인' 중 41위로 100인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제너는 화장품 사업 등을 통해 총 8000억을 벌어들여 화제가 됐다.

카일리 제너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카다시안즈 홀루 촬영하러 가는 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그녀는 알렉산더왕 브랜드의 누드톤 원피스를 착용했다. 이에 더해 커다란 금색 직사각형 귀걸이와 허벅지 높이의 뽀족한 부츠를 매치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자랑했다.

카일리 제너는 최근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홀루'의 리얼리티 쇼 '더 카다시안즈'에 출연하고 있다. 앞서 제너는 연인인 래퍼 트래비스 스캇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산후 조리의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다. 제너는 당시 "개인적으로 둘째는 첫째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우상혁, 남자 높이뛰기 세계기록 넘을까

세계육상선수권 한국 명단 발표 오주한·최병광도 함께 이름 올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에서는 3명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육상연맹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5~24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확정해 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는 우상혁과 마라톤의 오주한(34·청양군청), 남자 20km 경보의 최병광(31·삼성전자)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단연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이다. 32명이 출전하는



우상혁이 3월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은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상혁의 개인 최고 기록은 실내 2m36, 실외 2m35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개인 최고 기록이 가장 높은 선수는 2m43의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이다.

리바키나 '카자흐 첫 메이저 정상' 새 역사 썼다

웬블던 테니스 여자단식 우승 아랍권 첫 결승행 자베르 석패

엘레나 리바키나(카자흐스탄·23위)가 웬블던 테니스대회 정상에 올랐다.

리바키나는 9일 영국 웬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2022 웬블던 여자 단식 결승에서 온스 자베르(튀니지·2위)에 2-1(3-6 6-2 6-2) 역전승을 거두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자를 차지했다.

리바키나의 우승으로 카자흐스탄 테니스의 역사도 새로 쓰였다.

중전 카자흐스탄 선수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남녀를 통틀어 4강이다. 리바키나는 카자흐스탄인으로는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우승자가 됐다.



엘레나 리바키나가 9일 2022 웬블던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뉴시스

1999년 6월 러시아에서 태어난 리바키나는 2018년 카자흐스탄으로 국적을 바꿨다. 지난해 프랑스오픈에서 8강에 올라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을 냈다.

리바키나와 우승 트로피를 두고 다툰 자베르는 아랍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